

제주도의 식품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언

제주산업대학 교수 오 창 경

식품의 품질과 그들 소비자들의 입맛을 자극하여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 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문화와 역사가 있고, 청정한 원료를 사용한 최상의 품질의 가공품이 생산되더라도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는 타 도시들에 비하여 매우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2007년 현재 제주도내 총생산은 7조 5,660억원(전국 857조 4,440억원의 0.9%)으로서, 이 중 농림어업 분야는 2조 3,174억원으로 이는 도내총생산의 13.9%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3.1%보다 4.5배 높다. 이에 반해 2차산업은 3.1%로 전국 평균 28.6%에 비하여 매우 낮고 3차산업은 83.0%로 전국평균 68.3%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전국에 비하여 1차산업에 비중이 높고, 2차산업 비중이 매우 낮은 기형적인 구조이다.

제주지역 산업구조 비교

구 분		제주 (A)	전국 (B)	A/B
명목 지역총생산액 (2006)	10억원	75,660	8,574,440	0.9%
산업구조 (2006)	1차(%)	13.9	3.1	4.5배
	2차(%)	3.1	28.6	
	3차(%)	83.0	68.3	
농가 및 농업인구 (2007)	가구(호)	35,735	1,231,009	2.9%
	인구(명)	105,004	3,274,091	3.2%
어가 및 어업인구 (2007)	가구(호)	7,046	73,934	9.5%
	인구(명)	19,186	201,512	9.5%
농림어업총생산액 (2006)	억원	23,174	246,351	9.4%
농림어업취업인구 (2007)	천명	63	1,399	4.5%

(자료: <http://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2008)

산업구조별 취업자수를 보면 2009년 현재 제주도내 총생산은 9조 5천억원(전국 1,066조 1천억원의 0.9%)이며,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1차산업 19.4%로 전국 평균 7.0%보다 2.8배 높은 반면, 2차산업은 3.8%로 전국 평균 16.4%에 비하여 4.3배로 낮고, 3차산업은 76.6%로 전국평균 76.8%와 비슷한 편으로 전국에 비하여 1차산업 취업비중이 2.8배 높은 반면, 2차산업 취업 비중은 4.3배 낮다.

2009년 제주지역 산업구조별 취업자 비율 비교

구 분		제주 (A)	전국 (B)	A/B
명목 지역총생산액 (조원)		9.5	1066.1	0.9%
산업구조	1차(%)	19.4	7.0	+2.8배
	2차(%)	3.8	16.4	-4.3배
	3차(%)	76.8	76.6	

(자료: <http://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2010)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총생산(GRDP)은 2005년 7조 9,166억원으로 전국 815조 2,893억원의 1.05%로 매우 적은 경제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1900~2000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은 10.9%로 동기간 전국 연평균 증가율 11.5%보다 약간 낮다.

농림축산업(어업포함) 분야는 2005년 1조 3,128억원으로 도내총생산의 16.6%로 전국 23조 2,540억원의 2.9% 수준으로 나타나 전국평균보다 7.5배 높다.

이와 같이 농림축산업 분야의 식료품 원재료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정지역이라는 자기 사슬에 묶여 이들 식료품 원재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이나 자본 축적 면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또한 산업의 고도화로 많은 발전을 이룬 타 지역에 비하여 근대화된 이후 근 4, 50년간의 제주도의 정책 방향을 보면 농수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관광 분야의 발전에 대한 많은 투자와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나 농수축산업 분야에서 생산된 원재료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하였다. 특히 농업이나 수산 원재료의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을 등용하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연구소들을 설립하여 생체(생과 또는 활어) 형태로 판매하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또한 청정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오염발생이 우려되는 산업(특히 식품제조업)이 설립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됨으로 인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여 단순가공 형태의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체계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잉여 농산물이나 이들 식료품 원재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식품 가공산업 분야에는 전문가의 등용은 물론 그 흔한 연구소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식품산업을 육성하지는 구호는 무성하였으나 실질적인 정책적 접근이 없었다.

따라서 입도 관광객 600백만 시대에 제주만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제주 특유의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구호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식품 관련 전문가들이 타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는 물론, 식품산업 발전의 제반 문제점을 타개하여 제주도의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제주 지역의 미래 동력사업은 식품(제조)산업이다.

제주지역의 식품가공제조업(식료품제조업)은 2009년 현재 제주지역의 제조업 전체업체수의 44.2% 및 종사자수의 44.8%를 차지하여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료품 제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¹⁾

식료품	사업체수(개) (%)	종사자수(명) (%)
제조업 총계	156	3,725
식료품	69 (44.2)	1,668 (44.8)
음료	9 (5.8)	589 (15.8)

자료 : 통계청, 『2009년 광업·제조업조사보고서』

그러나 제주지역의 식품제조가공산업체는 대부분이 5인 이하의 소기업으로 규모가 영세하고 낮은 기술개발 투자와 협소한 시장 여건 등으로 경쟁력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식품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존 지역특산물 개발사업과의 차별화, 사업체간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주의 청정 이미지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투자 확대 등의 기회요인을 활용해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 추진 전략 및 식품가공 제조업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제주지역에 식품가공제조업의 조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공단지의 통폐합을 통하여 새로운 대단위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 지역의 오염물 배출기준을 청정지역의 법적규제보다 한·두 단계 낮은 법을 적용하는 규제완화를 실시하거나 도 차원의 대규모 오염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식품가공업체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의 유사업종간의 통폐합 내지 융합을 통한 자본의 거대화화 경영의 합리화를 유도하여 제주지역 식품가공산업의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며, 제주도나 중앙정부 차원의 불필요한 소규모의 중복 지원·투자를 없애고 집중적·집약적 지원·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별화된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외식산업은 식품산업의 일부분에 속한다. 제주지역의 외식산업은 소규모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평균 수익성이 높을 수가 없는 구조로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상당수 업체가 창업과 폐업을 반복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수요를 늘이거나 공급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고질적으로 외식업체가 안고 있는 시스템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공급을 줄이는 방법은 업체의 신설을 억제하거나 기존업체를 퇴출시켜 외식시장의 공급자를 줄이는 의미로서 대규모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도내수요의 증대는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소득증대

1) 5인 이상 사업체

그리고 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 될 수 있지만, 당장 심각한 수급 불균형 해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600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의 경우 우리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 외국 관광객의 입맛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음식을 개발하여 관광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서 시스템적인 문제를 진정시키고, 이들 외국인 외식업체들로 하여금 규모의 경제를 달성케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외식산업의 현대화와 전문인력 양성·배출, 식재료 공급 체계 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등으로 구조개선 및 경영 합리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외식산업을 포함한 식품산업을 육성·발전시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제주지역 동력산업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산업·사업체구분별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산업분류	사업체수(개소)		종사자수(명)	
	전국	제주(%) / (제주%)	전국	제주(%) / (제주%)
전체 산업	3,293,558	45,990(1.4)	16,818,015	200,130(1.2)
농업, 임업 및 어업	2,302	435(18.9)/(0.95)	29,362	4,807(16.4)/(2.40)
광업	1,840	21(1.1)/(0.05)	17,147	302(1.8)/(0.15)
제조업	320,374	1,922(0.6)/(4.18)	3,269,339	8,540(0.3)/(4.2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74	26 (1.8)/(0.06)	67,661	1,248(1.8)/(0.62)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038	65(1.3)/(0.14)	65,576	717(1.1)/(0.36)
건설업	94,716	1,277(1.3)/(2.78)	894,504	11,973(1.3)/(5.95)
도매 및 소매업	861,736	11,982(1.4)/(26.05)	2,626,339	33,059(1.3)/(16.52)
운수업	344,071	5,782(1.7)/(12.57)	972,831	14,513(1.5)/(7.25)
숙박 및 음식점업	628,078	10,916(1.7)/(23.74)	1,757,715	33,531(1.9)/(16.7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4,178	206(0.9)/(0.45)	429,109	3,173(0.7)/(1.59)
금융 및 보험업	38,341	621(1.6)/(1.35)	682,428	9,426(1.4)/(4.7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5,804	879(0.7)/(1.91)	444,185	2,951(0.7)/(1.4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7,558	657(1.0)/(1.43)	728,398	4,355(0.6)/(2.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2,812	804(2.4)/(1.75)	694,417	7,813(1.1)/(3.9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768	210(1.8)/(0.46)	659,265	12,404(1.9)/(6.20)
교육 서비스업	162,454	2,325(1.4)/(5.06)	1,358,311	16,634(1.2)/(8.3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8,976	1,381(1.4)/(3.01)	972,196	14,113(1.5)/(7.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2,697	1,470(1.4)/(3.20)	323,404	9,232(2.9)/(4.6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9,341	5,011(1.4)/(10.90)	825,828	11,339(1.4)/(5.67)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2009년 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웰빙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단체 급식에서의 식중독 사건으로 신선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출식품은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나 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와 같은 식품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출 자체가 차단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신선식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생산과 제조, 포장, 보관, 운송 등 유통과정마다 위생처리가 완벽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식품가공업체들 스스로가 HACCP이나 GAP(또는 GMP) 설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지침을 입안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임은 물론, 결과적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료품들은 대량으로 유통되는 중에 변질되거나 식품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제주산 식료품은 유통을 담당하는 중간상인들을 거쳐 외부로 반출시킬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유통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하여 유통과 관련된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내·외에 거대 물류센터의 설립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유통의 일원화·단순화를 유도하고, 제주도에서 생산된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료품은 도민 자체가 유통·관리한다는 동질감을 주는 의식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은 1차산업(농·수·축산업)과 예술이 접목되어야 한다.

식품산업은 단순히 식품을 먹어 배를 불리고 영양을 충족하는 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야기 거리가 있는 음식에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식품산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먹는 것과 재미가 더한 산업을 이루기 위하여 1차산업(농·수·축산업)과 예술을 접목시켜야 한다. 한가로운 농장이나 목장에서 여유를 갖고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 하며,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은 음식을 먹고, 이것을 원료로 한 식품을 구입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집 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테마가 있는

(예술적인) 한 폭의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농축어업과 융·복합하여 지역기반 식품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산 원료 조달 체계 구축 및 R&D, 마케팅, 판로 확보 지원 및 전통적 식생활·식문화의 보급 확대와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청정한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식료품 원료를 이용하여 만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전국 어디에서나 선풍의 대상일 것이다. 여기에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여 그 음식 또는 가공식품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다면 이들에 의한 홍보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이와 같이 농어가 등의 원산지를 중심으로 테마가 있는 식품산업 단지가 형성되면 식품가공단지를 중심으로 농어업 생산자와 연계하는 지역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집중적·집약적 지원·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중복 투자·지원을 배제한 효과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가공업 육성을 위해서는 식품가공 관련 연구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식품산업 발전의 근본은 연구·개발 분야이다. 가공식품은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제주지역의 식품가공업체들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경쟁에 이겨야 하는 부담을 안고 기업 활동을 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연구·개발은 고사하고 생산시설 설비를 완비하거나 경영개선을 이루는 면에서조차도 힘겨운 상태라 할 수 있다. 즉, 가공 제품의 품질개선이나 신제품 개발 등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이나 대학의 식품관련 학과 차원에서 잠재되어 있는 연구자들을 집약화·집중화시키는 연구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식품 가공 관련 연구소 내지 제품 생산 설비를 갖춘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연구 인력들이 타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며,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식품의 품질과 그들 소비자들의 입맛을 자극하여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 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문화와 역사가 있고, 청정한 원료를 사용한 최상의 품질의 가공품이 생산되더라도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의 소비자 선호도를 포함한 관능검사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 또는 연구소가 필요할 것이다.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은 식품산업이지만, 식품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제품의 품질, 신제품 개발 등의 연구·개발 분야이다. 제주지역은 이러한 분야의 연구기관이 거의 전무하므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5대 성장산업(식품산업, 한방·바이오산업, 물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그리고 프랜차이즈산업) 첨단기술 신성장 4대 제조업(조선부품과 선박제조업, 레저스포츠용품 제조업, 그리고 스마트그리드와 재생에너지부품산업, IT융합산업)을 극대화하고 제주맥주산업과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집중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정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발전은 바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리라 전망한다. ●